

# “日지방경찰 태평양전쟁 위안소 운영 개입 추정 문서 발견”

### 패전 직후 “위안소 전쟁 전 수준으로” 지시 니가타현 경찰 간부, 1945년 9월 하달

일본 지방 경찰 간부가 1945년 8월 태평양전쟁 패전 직후 위안소와 관련해 “서서히 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도쿄신문이 교토통신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혼슈 중부 니가타현 경찰 부장은 1945년 9월 19일 각 서장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일본인 대상 위안소 설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부장은 점령군 대상 위안소를 우선시하라면서 “창기(娼妓)와 접대부 충족에 힘쓸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업태 허가, 영업 지역·건물 지정에 관해서는 반드시 경찰부장에게 품의할 것”을 요구하고 위안소 개설 절차와 관련해 “온 힘을 다해 편의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니가타현립 문서관이 특정 역사 공문서로 보관해 온 ‘연합군 진주(進駐) 관계철’에서 확인됐다.

이 문서는 니가타현 쓰가와경찰서가 1945-1946년도에 작성했으며, 전체 분량 약 600쪽 가운데 최소 22쪽이 위안 시설 관련 기술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경찰부장 지시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관(官)이 위안소 운영에 태평양전쟁 전부터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전쟁 이전 복귀’와 ‘품의’를 지시한 대목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일제강점기 위안부 모집 등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 등을 연구해 온 후지메 유키 오사카대 명예교수는 “전쟁 이전 복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일본 경찰에는 전쟁 전부터 여성 매매를 관리하는 듯한 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령군은 그러한 체제를 이용한, 이른바 공범 관계였다”고 덧붙였다.

통지문에는 위안 시설인 특수음식점 단속에 대한 내규도 있었다. 내규는 17세 미만, 남편이 있는 자, 미성년자로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자는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접대부는 경찰서장이 지정한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고, 고객용 침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니가타현 경찰사(史)에 따르면 1945년 10월 25일 시점에 니가타현 내에는 위안 시설 151곳이 있었다.

교도는 옛 내무성이 패전 직후 전국 경찰에 위안소 설치를 지시했다는 것은 알려졌으나, 지방 경찰이 정한 상세한 규칙이 드러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스라엘, 후티 반군 발전소 공습 17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예멘 수도 사나 남쪽의 하즈 발전소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 현장의 피해 상황을 한 남성이 살펴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예멘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자 지구 전쟁 기간 내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최근 조치다. /AFP=연합뉴스

## 이란 추방 난민들 탄 버스 아프간서 사고...71명 사망

### 오토바이·연료 운반 트럭과 충돌 후 화재

이란에서 강제 추방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교통사고 후 화재를 일으켜 어린이가 포함 71명이 숨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 외곽 구지라 구역 도로에서 버스가 오토바이와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후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어린이 17명을 포함해 71명이 숨졌다.

버스 승객 가운데 3명만 생존했으며 트럭 탑승자 2명과 오토바이 탑승자 2명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버스에 최근 이란에서 추방된 아프간 난민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헤라트주 대변인인 무함마드 유수프 사이디는 “(사고 당시) 버스는 이란 국경 검문소인 이슬람 갈라에서 아프간 이주자들을 태우고 수도 카블로 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헤라트주 경찰은 버스가 오토바이와 먼저 충돌한 뒤 연료 운반 트럭과 또 부딪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버스 운전기사의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아프간 난민을 포함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대거 추방하고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들

어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쫓겨나 아프간으로 돌아간 난민은 최소 150만명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도 대대적인 아프간 난민 추방에 나섰다.

아프간 난민부는 현재 해외에 있는 자국민 난민수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프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란과 파키스탄 등의 대대적인 난민 추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집권한 탈레반은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했고, 지금도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를 기반으로 통치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 67세 마돈나, 29세 남자친구와 이탈리아서 생일파티

팍스마 마돈나가 67세 생일을 맞아 29세 남자친구,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화려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페이지식스 등 미국 매체들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마돈나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1482년부터 내 생일인 8월16일에 시에나에서 열리는 팔리오 경마를 보는 것이 수년간의 내 꿈이었다. 꿈은 이뤄진다. 내 생일을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실제 현지에서 행사를 관람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



팔리오 축제는 매년 8월16일 이탈리아 중세도시 시에나에서 열리는 유명 경마대회다.

마돈나가 올린 영상에는 그가 38살 연하인 남자친구 아킵 모리스를 비롯해 자녀, 지인들과 함께 즐겁게 생일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는 모리스와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거나 흥겹게 춤을 추는 장면도 나온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모리스는 지난해 7월 마돈나의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이 처음 게시되며 마돈나가 교제 중인 상태로 지목됐고,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모리스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한때 뉴욕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는 과거 2020년 62세 생일 때는 35살 연하의 남자친구 알라마릭 윌리엄스(당시 27세) 등과 함께 대마초(마리화나)를 곁들인 축하 파티를 열어 입방아에 오른 이력도 있다.

한편 마돈나의 올해 생일파티 영상에는 중국 기업 팍마트의 ‘라부부’ 인형 모형에 ‘해피 버스데이 마두두’(HAPPY BIRTHDAY MADUDU)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케이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 “美 정부, 美 공장 짓는 반도체기업 지분확보 검토”...삼성 포함

### 반도체지원법 따른 지원 대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

가 이란 기업에 해당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확정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액수는 TSMC 66억 달러(9조2천억원), 마이크론 62억 달러(8조6천억원), 삼성전자 47억5천만 달러(6조6천억원)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이란 지원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취재원 2명은 계획 논의에 스콧 베스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권을 쥐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주무 장관인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